

성경 번역에서 본 한국어와 일본어(1)*

- 1950년대 번역 성경을 중심으로 -

安 增 煥**

目 次

1. 연구목적
 2. 번역사에서 보는 자료적 가치
 3. 1950년대 한일 성경 대조로 본 두 언어의 특징
 - 3.1 문장 단위 비교
 - 3.2 일본어 「は」와 「が」, 한국어 ‘는’과 ‘가’
 - 3.3 경어형태 비교
 4. 결론
-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조연구를 위해 ‘성경’이 갖는 자료적 가치를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대조언어학이란 대조를 시도하는 두 언어 중 한 쪽을 기준으로 하거나 혹은 언어학의 언어이론에 근거해서 두 언어의 상대적 특징을 규명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대조연구에 사용되는 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두 언어에 대한 객관적인 대조자료를 갖고 분석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연구자의 지식이나 언어 직관에 의해 연구자가 의도하는 문을 직접 만들어 비교하는 경우이다.

본 연구는 첫 번째 경우의 대조자료에 대한 재검토에서 출발한다. 이들 대조자료는 일반적으로 일본어 원본과 그에 대한 한국어 번역본, 혹은 거꾸로 한국어 원본과 그에 대한 일본어 번역본이 사용된다. 물론 번역자는 모두 두 언어에 정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료에는 몇 가지 문제 — 주로, 번역본에 쓰인 언어 — 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번역과정에서 상대 언어의 간섭으로 인해 대조자료로

* 이 논문은 2005학년도 한남대학교 교비학술연구비에 의해 작성되었음.

** 한남대학교 교수 일본어학

서의 객관성이 결여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켜 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된다.

이하 본고에서는 성경의 자료적 가치를 성경의 번역사 및 몇 가지 언어항목의 대조를 통해 확인하기로 한다.

2. 번역사에서 보는 자료적 가치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등을 원문으로 하는 성경은 세계의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고 있다. 언어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성경이 갖는 언어자료로서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언어권에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개역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것은 곧 각각의 언어권에서의 성경의 번역사가 곧 해당 언어의 변화현상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성경이 한국어와 일본어의 언어구조를 대조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배경도 바로 동일한 내용을 갖는 성경이 비슷한 간격을 두고 두 나라에서 각각 개역되고 있었다는 데에 있다. 또한 이들 번역이나 개역이 개인보다는 전문가 그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많다는 사실도 자료로서의 객관성을 입증해 준다.

본 논문에서는 19세기부터의 두 나라 성경 번역 및 개역에 관심을 갖고 논하기로 한다. 이는 두 나라 모두 신약성경 전권이 완역된 시기가 19세기 후반이라는 시기적 공통점에서 성경대조의 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¹⁾. 이제 번역시기가 일본이 앞섰던 점을 고려해 일본의 성경 번역사부터 개관해 본다²⁾. 일본에서의 본격적인 성경 번역은 S.R.브라운(1866)이나 J.C.헤본(1868)등에 의한 성경 낱권에 대한 부분적인 번역작업이 이어지다가 1887년 ‘東京翻譯委員會’에 의해 <新約全書(1880)>와 <舊約全書(1887)> 등 신구약 성경 전권이 번역되기에 이른다. 이것이 <明治譯聖書>이다. 그 후 1917년 일본의 ‘聖書改譯委員會’에서 ‘文語譯’인 <大正譯新約聖書>를 개역해 내고, 1955년에 다시 <口語譯聖書> 전권이 ‘改譯委員會’에 의해 수정 번역되며, 1987년 ‘共同譯聖書實行委員會’에 의해 <新共同譯聖書>가 나오게 된다.

한편 한국의 성경번역은 일반적으로 스코틀랜드 선교사로 중국에 와 있던 J.로스 목사가 이응찬, 서상륜 등 한국인 몇몇과 같이 번역한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1882)>와 신약성경 전권인 <예수성교전서(1887)>를 시초로 보고 있다³⁾. 이어서 1884에는 박영효를 따라 일본에 갔던 이수정에 의해 신약성경의 일부가 <漢韓聖經>으로 출간되고, 그 후 언

1) 일본은 1887년에 신구약 성경 전권이 번역되나, 한국은 J 로스역 신약성경만이 비슷한 시기에 완역된다.
2) 일본은 성경의 최초 번역시기를 1549년 ‘フランシスコ・ザビエル’에 의한 ‘마태복음’ 일부에 두고 있다.
3) 성경의 일부를 발췌한 발췌번역으로는 1790년에서 1800년으로 추정되는 필사본 ‘성경직해광역’이 있다. 대한성서공회(1995), p.43

더우드와 아펜젤러 등 선교사들이 중심이 된 ‘상임성서위원회(대한성서공회의 시초)’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소위 ‘舊譯’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으로 <신약전서(1900)>와 <구약전서(1911)>가 출간됨으로써 성경 전체의 번역이 완결된다. 1938년에 이것들이 개역된 <성경개역>이 나오고, 이 <성경개역>이 다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근거해 표기법이 수정되면서 오늘날까지 보편적으로 읽혀지는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가 1956년에 나온다⁴⁾. 그 후 1977년에 가톨릭과 개신교가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번역성서>(1999년에 개정판)가 나오고, 1993년에 다시 개신교에서 <표준새번역 성경>(2002년에 개정판)을 내놓고 있다.

양국의 이러한 성경 번역사를 근거로 보면, 한글역과 일본어역 성경에서 시기나 문체 등에서 적절한 대조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예수성교전서(1887)>(로스역)	vs	<新約全書(1880)>(明治譯)
<신약전서(1900)>(舊譯)	vs	<新約聖書(1917)>(大正譯)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1956)>	vs	<聖書 口語譯(1955)>
<공동번역성서 개정판(1977)5>	vs	<聖書 新共同譯(1987)>

이 가운데 한국어 ‘로스역(1887)’은 평안도 지방을 비롯한 서북방언으로 쓰였고 일본어 ‘明治譯(1880)’은 표기가 古語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대조적인 관점에서 두 언어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기준시점으로 인정받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국어 舊譯인 <신약전서(1900)>와 일본어 文語譯인 ‘大正譯(1917)’, <개역한글판 성경(1956)>과 일본어 ‘口語譯(1955)’, 한국어 <공동번역성서(1977)>와 일본어 ‘新共同譯(1987)’ 등은 각각이 공시적인 대조자료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시적으로도 100여년 사이에 각각의 언어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는 것은 확실하다.

다음은 성경이 각각 한국어와 일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두 언어 사이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대한성서공회(1995)는 초기 한국어로의 성경번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분류하고 있다. 하나는 선교사들로 이들은 성경원문과 번역 대본이 되는 영어 등의 번역본을 번역했고, 다른 한 부류는 한국인 번역자들로 이들은 중국어 성경이나 일본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역할을 했다. 따라서 한국어 성경의 일본어 성경 영향을 전혀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하나 일본어의 영향을 생각할 수

4) <성경개역(1938)>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1956)>은 번역내용보다는 표기법 수정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본어 <聖書 口語譯(1955)>의 대조자료로는 후자만을 취하기로 한다.

5) <공동번역성서>를 1999년 개정판이 아니라 1977년판을 취한 것은 개정판의 수정 내용이 일부 번역의 오류와 표기법에 관한 것으로 시기적 차이가 반영된 표현법 등의 수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표준새번역 성경>을 직접적인 대조자료에 넣지 않은 것은 <공동번역성서>와 시간적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과 <공동번역성서>와 일본어 ‘新共同譯’은 가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개역작업을 진행했다는 공통점 때문이다.

있는 근거는 한국과 일본에 와서, 특히 성경번역을 위해 활동하던 선교단체들이 미국성서공회를 비롯해 영국성서공회와 스코틀랜드성서공회 등 3국의 성서공회로 공통되었음을 염두에 두면 적지 않은 영향이 있었음도 인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번역 성경이 현대어를 중심으로 두 언어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살필 수 있는 아주 객관적인 공시적, 통시적 대조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상의 기술만으로도 명백히 드러난다.

이제 3장에서는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1956)>과 <聖書 口語譯(1955)>을 갖고,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의 언어현상 몇 가지를 대조 분석함으로써 성경의 자료적 가치를 입증하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다음 세 가지 언어항목에 초점을 맞춰 이를 확인하기로 한다⁶⁾. 첫째는 문장 단위에서 두 언어를 비교하는 것이고, 둘째는 「は」와 「が」, 「는」과 「가」의 상관성이며, 셋째는 경어범주에 관한 것이다.

3. 1950년대 한일 성경 대조로 본 두 언어의 특징

3.1 문장 단위 비교

1950년대(이하, 50년대) 한일 성경 대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사실은 문장 단위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문의 수가 다르다는 점이다. 동일한 현상이 안증환(2004)의 한일 기도문 비교분석에서도 나타났지만, 이들이 성경대조에서 확인됨으로써, 이것은 50년대 한국어와 일본어 문장 단위에서 볼 수 있는 상대적 특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한국어가 일본어에 비해 복문의 사용이 많았던 것을 시사하며, 그 배경에는 접속형태의 발달정도 차이가 간여한다고 본다. 즉 한국어는 일본어에 비해 접속형태가 발달했기 때문에, 문을 길게 늘이는 데에 일본어보다 자유롭다는 것이다. 사실, 50년대 성경에서 사용된 순접접속형태만을 보아도 한국어는 ‘고’ ‘사’ ‘서’ ‘요’ ‘야’ ‘니’ ‘거늘’ 등등으로 다양하나, 일본어는 연용형과 「て」형 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없다. 그 대신 일본어는 한국어에 비해 접속사의 종류나 사용빈도가 훨씬 많게 나타난다.

이하, 예문을 통해 확인하기로 한다. 예문은 『마태복음』 전장을 대상으로 했다.

- (1)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6) 본고에서 제시된 세 개의 대조대상은 다양한 대조연구 대상 중 일부 예에 해당할 뿐이다.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5:3~10)

こころの貧しい人たちは、さいわいである、天國は彼らのものである。/悲しんでいる人たちは、さいわいである、彼らは慰められるであろう。/柔らかな人たちは、さいわいである、彼らは地を受けつぐであろう。/義に飢えかわいている人たちは、さいわいである、彼らは飽き足りるようになるであろう。/あわれみ深い人たちは、さいわいである、彼らはあわれみを受けようであろう。/心の清い人たちは、さいわいである、彼らは神を見るであろう。/平和をつくり出す人たちは、さいわいである、彼らは神の子と呼ばれるであろう。/義のために迫害されてきた人たちは、さいわいである、天國は彼らのものである。(‘/’은 필자주. 이하 동일)⁷⁾

- (2)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9:6~8)

「しかし、人の子は地上で罪をゆるす權威をもっていることが、わかるために」と言い、中風の者に向かって、「起きよ、床を取りあげて家に歸れ」と言われた。/すると彼は起き上がり、家に歸って行った。/群衆はそれを見て恐れ、こんな大きな權威を人にお与えになった神をあげた。/

한국어문은 (1)(2) 모두 하나의 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본어는 각각 8개와 3개의 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장을 구성하는 문의 수에서 두 언어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 다음의 예문은 한국어의 접속어미가 일본어에서는 접속사라는 독립된 품사로 실현됨으로써 문의 수를 달리하는 배경을 살핀다.

- (3)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수종들더라 (마8:14~15)

イエスはペテロの家にはいって行かれ、そのしゅうとめが熱病で、床についているのをご覧になった。/そこで、その手にさわられると、熱が引いた。/そして女は起き上がってイエスをもてなした。

- (4) 배에 오르시매 제자들이 좃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마8:23~24)

イエスが舟に乗り込まれると、弟子たちも従った。/すると突然、海上に激しい暴風が起って、舟は波にのまれそうになった。/ところが、イエスは眠っておられた。

7) 일본어 성경의 한자어에는 「振り仮名」가 달려있으나, 본고에서는 생략했음.

- (5)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 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붙잡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이 밝아진지라 (마9:27~30)

そこから進んで行かれると、ふたりの盲人が、「ダビデの子よ、わたしたちをあわれんで下さい」と叫びながら、イエスについてきた。/そしてイエスが家にはいられると、盲人たちがみもとにきたので、彼らに「わたしにそれができると信じるか」と言われた。/彼らは言った、「主よ、信じます」。そこで、イエスは彼らの目にさわって言われた、「あなたがたの信仰どおり、あなたがたの身になるように」。/すると彼らの目が開かれた。

예문(3)~(5)에서도 한국어문 하나가 일본어에서는 여러 개의 문으로 나뉘어져 있어, (1)(2)에서 본 현상이 일반적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각 문장의 밑줄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어의 접속어미가 일본어에서는 접속사로 실현되고 있다. 즉, (3)에서는 한국어의 접속어미 ‘고’가 일본어에서는 접속사 「そこで」「そして」로, (4)에서는 ‘더니’ ‘오되’가 「すると」「ところが」로, (5)에서는 ‘더니’ ‘니’ ‘태’가 「そして」「そこで」「すると」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런 것은 결국 한국어는 접속형태가 분화된 반면에, 일본어는 그렇지 않는 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50년대 한국어 성경에서 접속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 (6)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6:33)

まず神の國と神の義とを求めなさい。そうすれば、これらのものは、すべて与えられるであろう。

- (7)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7:11~12)

このように、あなたがたは悪い者であっても、自分の子供には、良い贈り物をする 것을知っている とすれば、天にいますあなたがたの父は、なおさら、求めてくる者に良いものを下さらないことがあろうか。だから、何事でも人々からしてほしいと望むことは、人々にもそのとおりにせよ。

즉 예문(6)(7)에서는 한국어 접속사 ‘그리하면’ ‘그러므로’와 일본어 접속사 「そうすれば」「だから」가 잘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대 문에서는 한국어가 일본어에 비해 접속사 사용이 적었던 것은 50년대 성경대조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실이다. 이런 차별성은 다음의 예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 (8) 저희가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마2:10~12)

彼らはその星を見て、非常な喜びにあふれた。そして、家にはいって、母マリヤのそばにいる幼な子に会い、ひれ伏して拝み、また、宝の箱をあけて、黄金・乳香・没薬などの贈り物をささげた。そして、夢でヘロデのところに歸るなどのみ告げを受けたので、他の道をとおって自分の國へ歸って行った。

- (9)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6:6)

あなたは祈る時、自分のへやにはいり、戸を閉じて、隠れたところにおいてになるあなたの父に祈りなさい。すると、隠れたことを見ておられるあなたの父は、報いてくださるであろう。

- (10)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아와 절하고 가로되... (마8:1~2)

- 8) イエスがお降りになると、おびたしい群衆がついてきた。すると、そのとき、ひとりの重い皮膚病にかかった人がイエスのところに来て、ひれ伏して言った、

예문 (8)~(10)의 일본어문에서는 문과 문 사이에 「そして」「すると」등의 접속사가 위치하나, 한국어는 동일한 위치에서 문은 종결되면서도 뒤에 오는 문과의 사이에 접속사 없이 문이 연결된다. 만일에 이런 현상이 규칙적인 것이라면, 이런 것은 한국어문과 일본어문 사이에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으로 종래의 대조연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만큼, 그 배경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현상은 50년대 성경의 불특정 부분을 무작위 추출해서 분석해도 똑같은 결과가 초래되는 것 같다. 필자가 마태복음 2장을 비교한 결과, 한국어는 11개의 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일본어는 23개의 문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접속사도 한국어는 ‘이에’와 ‘그러나’ 등이 4번 나타나, 일본어는 「そこで」「そして」「さて」「しかし」「こうして」 등이 13번 출현하고 있었다.

<표> 마태복음 2장 비교

		한국어		일본어				
문의 수		11		23				
접속사	종류	이에	그러나	そこで	そして	さて	しかし	こうして
	횟수	3	1	4	5	2	1	1

3.2 일본어 「は」와 「が」, 한국어 ‘는’과 ‘가’

주지하는 대로, 일본문법에서 「は」와 「が」의 문제는 주제와 주어, 혹은 구정보와 신정보 등등의 용어를 원용하면서 각각의 문법적 의미나 화용론적 조건 규명을 둘러싼 주요 쟁점 중의 하나이다. 쿠노(久野暲, 1973)는 「は」와 「が」각각의 의미를 주제와 대조, 총기와 중립서술 및 목적적으로 분류하는데, 이들 의미는 한국어 ‘는/은(이하, ‘는’으로 대표)’과 ‘가/이/께서(이하, ‘가’로 대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두 언어의 유사성이 입증된다.

- (11) 太郎は學生です。<주제>
타로는 학생입니다.
- (12) 雨は降っていますが、雪は降っていません。<대조>
비는 오는데, 눈은 안 옵니다.
비는 오는데, 눈이 안 옵니다.
- (13) 太郎が學生です。<총기>(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 중 타로만이 학생이다라는 뜻)
① 타로가 학생입니다.
- (14) 雨が降っています。<중립서술>(관찰가능한 동작, 일시적인 상태)
① 비가 옵니다.
- (15) 僕は花子が好きだ。<목적격>
① 나는 하나코가 좋다.

예문 (11)~(15)의 일본어문은 쿠노(1973)를 인용한 것으로, 각각에 대한 한국어문이 자연스러운 것을 통해 「は」와 ‘는’, 「が」와 ‘가’의 문법성은 일치하는 듯이 보인다. 때문에 총기나 중립서술 등 약간 생경한 용어에 대한 이해만 선행되면 대조에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다만, (12)의 <대조>는 한국어의 경우, ‘비는 오는데, 눈이 안 옵니다’처럼 주절에서 ‘는’ 대신 ‘가’도 자연스럽다.

한편, 이것은 신정보인가 구정보인가 하는 정보의 신선도에 의한 구분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다음의 예는 시바타니(柴谷方良, 1982)를 인용하면서 한국어역과 비교한 것이다.

- (16) タイガース가 優勝する。 타이거스가 우승한다.
 新情報 旧情報 신정보 구정보
- (17) 優秀するのは タイガースだ。 우승하는 것은 타이거스이다.
 旧情報 新情報 구정보 신정보
- (18) むかしむかしあるところにおじさんとおばさんが住んでいました。(전체가 신정보)
 옛날 옛날 어떤 곳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즉, (16)처럼 '㉠가/가㉡'의 경우라면 ㉠는 신정보를 나타내고 ㉡는 구정보를 나타낸다. 그러나 (17)처럼 '㉠は/는㉡'의 경우에는 (16)과는 반대로 ㉠가 구정보를 나타내고 ㉡가 신정보를 나타낸다. 한편 (18)은 「가」와 '가' 모두 ㉠와 ㉡를 나누지 않고 문 전체를 신정보로 수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의미적 특징도 두 언어가 일치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사성이 실질적인 문의 대조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것인가이다. 사실 50년대 성경 대조를 통해 보면, 일본어 「は」와 「が」, 한국어 '는'과 '가'의 출현분포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때문에 이 차이가 50년대라는 시대적 차이인가, 아니면 두 언어를 특징지을 수 있는 근본적인 차이인가가 관심을 끈다. 이하, 성경의 예문을 통해 확인하기로 한다.

먼저, 「が」와 '가'의 대응관계가 일치하는 것들이다.

- (19) 彼ら[㉠]が[㉡]歸って行ったのち、見よ、主の使い[㉠]が[㉡]夢でヨセフに現れて言った、「立って、幼な子とその母を連れて、エジプトに逃げなさい。そして、あなたに知らせるまで、そこにとどまっていなさい。ヘロデ[㉠]が[㉡]幼な子を探し出して殺そうとしている」。(マ2:13)
- (20)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의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예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 (20) イエス[㉠]が[㉡]ヘロデ王の代に、ユダヤのベツレヘムでお生まれになったとき、見よ、東からきた博士[㉠]たち[㉡]が[㉡]エルサレムに着いて言った、(マ2:1)
- (20)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 (21) しかし、アケラオ[㉠]が[㉡]その父ヘロデに代ってユダヤを治めていると聞いたので、(マ2:22)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 하더니

(19)~(21)에서는 일본어 「が」와 한국어 '가'와의 대응관계가 자연스럽다. 그리고 이들은 쿠노의 개념으로는 중립서술을 나타내고, 시바타니의 개념으로는 (16)의 신정보와 구정보의 조합이거나 (18)의 문 전체의 내용을 신정보로 처리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은 「は」와 '는'의 대응이 일치하는 것들이다.

- (22) 『ユダの地、ベツレヘムよ、おまえ[㉠]は[㉡]ユダの地たちの中で、決して最も小さいものではない。』(マ2:6)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 (23) ヘロデ[㉠]が死ぬまでそこにとどまっていた。それは、主[㉠]が[㉡]預言者によって「エジプトからわが子[㉠]を呼び出した」と言われたことが、成就するためである。(マ2:15)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 (23) ナザレという町に行つて住んだ。これは予言者たちによつて、「彼はナザレ人と呼ばれるであらう」と言われたことが、成就するためである。(マ2:23)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22)~(24)의 「は」와 「는」은 모두 쿠노의 개념으로는 주제를 나타내는 것이고, 시바타니의 개념으로는 구정보를 나타내는 것으로 두 언어가 일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관계가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 (25) 「ユダヤ人の王としてお生まれになつたかたは、どこにおられますか。わたしたちは東の方でその星を見たので、そのかたを拝みにきました」。(マ2:2)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 (26) そこで王は祭司長たちと民の律法學者たちとを全部集めて、キリストはどこに生まれるのかと、彼らに問ひだした。(マ2:4)

(10)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뇨 물으니

- (27) そこで、ヘロデはひそかに博士たちを呼んで、星の現れた時について詳しく聞き、(マ2:7)

(10) 이에 헤롯의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 (28) 彼らはその星を見て、非常な喜びにあふれた。(マ2:10)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 (29) そこで、ヨセフは、立つて、夜の間に幼な子とその母とを連れてエジプトに行き、(マ2:14)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 (30) 「立つて、幼な子とその母を連れて、イスラエルの地に行け。幼な子の命をねらっていた人々は、死んでしまった。」(マ2:20)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의 죽었느니라

즉 (25)~(30)의 일본어문에서는 쿠노의 주제나 시바타니의 구정보를 나타내는 「は」의 위치에 한국어는 「는」이 아닌 「가」가 출현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어의 이 「가」를 주제나 구정보를 나타내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한국어 「가」는 쿠노의 중립서술이나 시바타니의 문 전체를 신정보로 처리하는 것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동일한 사태에 대한 두 나라의 인식 차이를 언어로 보여주는 언어학적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동일한 출현조건하에서 문법성이 다른 「は」와 「가」가 일

본어문과 한국어문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관심을 끄는 결과는 조사된 통계수치이다. 마태복음 2장을 보기로 조사한 결과, 한국어와 일본어의 성경에서 공통된 위치에 출현한 문제의 조사는 총 29개였다. 그 가운데 「は」와 「는」, 「が」와 「가」로 대응이 이루어진 것이 16개였고, 나머지 13개는 일치하지 않았다. 특히 이 자료에 근거하면, 일본어는 「は」가 많은데 비해, 한국어에서 「는」은 3개 밖에 없어, 일본어는 「は」중심으로 문이 전개되지만 한국어는 「가」 중심으로 문이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분석 결과는 신뢰할 만하다. 50년대판으로 마태복음과는 문체가 다른 각각의 번역 성경 로마서 1장에서도 일본어는 「は」와 「が」가 32개와 11개 출현하는데 반해, 한국어에서는 「는」과 「가」가 각각 16개와 31개로 동일한 비교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표>마태복음 2장 「は」와 「는」, 「が」와 「가」 비교

	일본어 vs 한국어	통계치
공통	「が」 vs 「가」	13
	「は」 vs 「는」	3
차이	「は」 vs 「가」	13
계		29

3.3 경어형태 비교

성경 대조에서는 경어범주에 관해서도 의미 있는 자료가 제시된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경어가 발달한 언어라는 점에서 공통되나, 주지하는 바대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다. 이를 주체존경법으로 범위를 한정해서 성경 대조를 통해 살펴보면, 첫째로 한국어는 경어형태가 「시」 하나이지만, 이러한 한국어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어 경어형태는 대단히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1)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1:16)
このマリヤからキリストといわれるイエスがお生まれになった。
- (32)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 이까 (마3:14)
ところがヨハネは、それを思いとどませようとして言った、「わたしこそあなたからバプテスマを受けるはずなのに、あなたがわたしのところにおいでになりますか」。
- (33)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베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마15:39)
イエスは群衆を解散させ、舟に乗ってマカダンの地方へ行かれた。

- (34)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마27:50)
 イエスはもう一度大聲で叫んで、ついに息をひきとられた。
- (35)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마8:24)
 ところが、イエスは眠っておられた。
- (36)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6:8)
 あなたがたの父なる神は、求めない先から、あなたがたに必要なものはご存じなのである。
- (37)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갓으시리라 (마6:4)
 すると、隠れたことを見ておられるあなたの父は、報いてくださるであろう。

(31)~(37)의 한국어문에 공통적인 경어형태 ‘시’가 일본어문에서는 다양한 형태에 대응되고 있다. (31)(32)는 「お~になる」에 의해 존경표현이 실현되지만, (33)~(35)는 「~られる」에 의해 실현된다. 이들은 일본어의 공식적인 경어형태로, 수많은 실례를 확보하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 둘의 독자적 영역도 예문분석을 통해 설명해 줄 것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36)에서는 동사 「存じる」의 접두어를 수반한 명사형 「ご存じ」에서, 그리고 (37)에서는 수여구문을 만드는 「~てくださる」에서 각각 한국어 경어형태 ‘시’와 대응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실질적인 대조자료는 한국인의 관점에서 일본어 경어범주를 새롭게 구분해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들이다.

한편, 다음의 예문처럼 한국어문에는 경어형태 ‘시’가 보이나, 그에 대한 일본어문에서는 아무런 흔적도 나타나지 않는 것들도 있다.

- (38)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16:17)
 すると、イエスは彼に向かって言われた、「バルヨナ・シモン、あなたはさいわいである。あなたにこの事をあらわしたのは、血肉ではなく、天にいますわたしの父である」。
- (39)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16:16)
 シモン・ペテロが答えて言った、「あなたこそ、生ける神の子キリストです」。
- (40)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마10:20)
 語る者は、あなたがたではなく、あなたがたの中にあつて語る父の靈である。

이것이 한국어와 일본어의 경어범주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차이이다. 한미경(1995)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경어체계는 절대경어와 상대경어라는 대립적 양상을 보인다고 했고, 전숙미(1995)는 경어운용에서 한국어는 혈연을 중시하고 일본어는 「ウチ」와 「ソト」라는 사회적 관계를 중시한다고 지적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즉 (38)에서 높여야 할 대상은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라는 주체로, 결국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자신의 아버지를 높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절대적 관계이며 혈연적 관계이다. 이런 경우 한국어에서는 경어형태 ‘시’의 출현이 필연적이다. 그러나 「ウチ」와 「ソト」를 구분하는 일본어에서는 그렇지 않다. 예수께서 자신의 아버지를 제3자인 ‘시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경어형태가 출현할 수 없다. (39)도 마찬가지이다. (39)에서는 1인칭인 화자가 2인칭인 청자에게 하는 말이다. 한국어에서는 청자는 ‘주’라는 경칭에서 볼 수 있듯이 절대높임대상이다. 때문에 ‘시’의 출현은 당연하다. 그러나 일본어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한 동아리인 「ウチ」관계에 있을 때는 경어표현을 쓰지 않는다. 여기에서 명사술어의 경어표현인 「～でいらっしゃる」가 아니라, 「～です」라는 정중표현이 쓰인 것은 이 때문이다. (40)에서도 높여야 할 대상은 주체인 ‘말하는 이’로, 이는 기독교에서 절대높임대상으로 구분되는 ‘성령’이다.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시’가 당연히 출현한다. 그러나 일본어에서는 그 대상이 화자 자신의 아버지에 속한 것으로, 상대경어체계를 갖는 일본어에서는 경어형태 출현이 허용되지 않는다. 성과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제공하는 중요한 정보이다.

세 번째로 한국어와 일본어는 경어형태의 출현위치에서 차이가 있음을 성경의 대조자료는 보여준다. 한국어는 주체가 높임대상이면, 중문의 경우 접속절이나 주절이나 가리지 않고 경어형태가 나타난다. 하지만 일본어는 주절에서의 경어형태 출현은 필수적이나, 접속절에서의 출현은 자의적인 것 같다.

(41)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마4:12)

さて、イエスはヨハネが捕らえられたと聞いて、ガリラヤへ退かれた。

(42)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마22:16)

「先生、わたしたちはあなたが眞實なかたであって、眞理に基づいて神の道を教え、また、人に分け隔てをしないで、だれをもはばかられないことを知っています。」

(43)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마5:1)

イエスはこの群衆を見て、山に登り、座につかれると弟子たちがみもとに近寄ってきた。

(44)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마26:10)

イエスはそれを聞いて彼らに言われた、...

예문 (41)~(44)를 보면, 한국어의 접속절에 속한 동사들은 모두 경어형태 ‘시’를 가진 반면에, 일본어 해당동사들에는 경어형태가 보이지 않는다. 마키노(牧野成一, 1996)는 일본어에서 외부 사람에 대한 경의표시는 문말에서 한번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 그러나 다음의 예문에서 보면, 일본어 경어형태는 접속절에서 출현이 불가한 것은 아니다.

- (45)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좃으라 하시니 일어나 좃으니라 (마9:9)
 さてイエスはそこから進んで行かれ、マタイという人が收税所にすわっているのを見て、「わたしに従ってきなさい」と言われた。すると彼は立ち上がって、イエスに従った。
- (46)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마14:14)
 イエスは舟から上がって、大ぜいの群衆をごらんになり、彼らを深くあわれんで、そのうちの病人たちをおいやしになった。
- (47)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마9:36)
 また群衆が飼う者のない羊のように弱り果てて、倒れているのをごらんになって、彼らを深くあわれまれました。
- (48)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마19:1)
 イエスはこれらのことを語り終えられてから、ガリラヤを去ってヨルダンの向うのユダヤの地方へ行かれた。

확실히 (45)~(48)의 예문은 일본어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접속절에도 경어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어만큼 출현빈도가 높지 않은 것은 명확하다. 이는 (45)의 ‘보시고’ 와 (46)의 ‘나오사’ ‘여기사’ 등이 각각 보통체인 ‘見て’와 ‘上がって’, ‘あわれんで’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통해 확인된다. 어쨌든 한국어에서는 주체가 높임대상일 경우 그의 동작은 문중이나 문말을 가리지 않고 높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본어는 상대적으로 경어형태가 문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런 상대적 현상은 (49)~(52)처럼 몇 개의 동작이 나열될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49)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4:23)
 イエスはガリラヤの全地を巡り歩いて、諸會堂で教え、御國の福音を述べ伝え、民の中のあらゆる病氣、あらゆるわずらいをおいやしになった。
- (50)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마26:26)
 一同が食事をしているとき、イエスはパンを取り、祝福してこれをさき、弟子たちに与えていわれた。
- (51)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마26:39)
 そして少し進んで行き、うつぶしになり、祈っていわれた、...

(52)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마26:27)

また杯を取り、感謝して彼らに与えて言われた、...

예문 (49)~(52)는 모두 접속절에서 몇 가지 동작이 나열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경어형태 출현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 같다. 그러나 일본어에서도 접속절의 경어형태가 필수적인 경우를 볼 수 있다. 즉 접속절의 주체가 주절의 주체와 다르면서 높여야 할 대상일 경우이다.

(53)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마13:2)

ところが、大ぜいの群衆がみもとに集まったので、イエスは舟に乗ってすわられ、群衆は
みな岸に立っていた。

(54) (예수는)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
들이 무리에게 주매 (마15:36)

(イエスは)七つのパンと魚とを取り、感謝してこれをさき、弟子たちにわたされ、弟子た
ちはこれを群衆にわけた。

예문 (53)(54)에서는 일본어문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경어형태 「~られる」가 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문에서 접속절의 주체인 ‘예수’는, 주절의 주체인 ‘군중’이나 ‘제자들’과 다르며 반드시 높여야 할 대상이다. 이런 경우는 일본어도 접속절에서의 경어형태 출현이 필연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54)처럼 접속절의 동작이 몇 개 나열될 때는 마지막 동사에만 경어형태가 출현함으로써 거의 모든 동작에 경어형태가 출현하는 한국어와는 구분된다.

또 하나, 성경의 대조에서 일본어 경어형태 출현과 관련해 발견되는 현상은 접속절이라도 「-る」 등 어미 부분이 밖으로 드러날 때는 경어형태의 출현빈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다음의 「~と」조건절이나 명사수식절과 같은 경우이다.

(55)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
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마4:18)

さて、イエスがガリラヤの海を歩いておられると、ふたりの兄弟、すなわち、ペテロと呼ばれたシモンとその兄弟アンデレとが、海に網を打っているのをごらんになった。

(56)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
친 세베대와 한가지로 배에서 그물 낚는 것을 보시고 (마4:21)

そこから進んで行かれると、ほかのふたりの兄弟、すなわち、ゼベダイの子ヤコブとその兄
弟ヨハネとが、父ゼベダイと一緒に、舟の中で網を繕っているのをごらんになった。

(57)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마2:2)

ユダヤ人の王としてお生まれになったかたは、どこにおられますか。

(58)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마26:6)

さて、イエスがベタニヤで、重い皮膚病の人の家におられたとき、

그러나 이것도 (59)(60)과 같은 예외가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은 되지 못 한다. 다만, (59)(60)과 같은 것이 어떤 문법적 조건의 지배를 받는지 아니면 수의적 사항인지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59)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마20:17)

さて、イエスはエルサレムへ上るとき、十二弟子をひそかに呼びよせ、その途中で彼らに言われた、(マ20:17)

(60)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마3:11)

わたしのあとから来る人はわたしよりも力のあるかたで、

경어형태가 발견되는 위치와 관련해 지금까지의 대조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것은 이렇다. 즉 주체높임의 경우 한국어는 경어형태가 주절과 접속절을 불문하고 거의 모든 동사에서 필수적으로 출현하는데 대해, 일본어는 주절의 동사와는 달리 접속절의 동사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적이라는 것이다.

4. 결 론

본고의 목적은 한일 대조연구의 자료로서 성경의 가치를 소개하는 것이었다. 한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은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를 원문으로 하는 번역문이라는 공통성을 지니면서, 번역과정에서 직접적인 상호영향이 적었다는 점 때문에 대조자료로서 절대적인 객관성을 갖는다. 대조자료로서 한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이 갖는 가치를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일 두 나라 모두 19세기 후반 성경이 완역된 이후 몇 번의 개역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최근 100여년 사이 두 언어의 변화양상을 대조적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시적 자료가 된다. 둘째, 각각의 성경에 대한 개역 시기가 20세기 초기 중기 후기로 공통되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서 두 언어의 상대적 특징을 찾을 수 있는 공시적 자료가 된다. 셋째, 이들 성경은 단순한 언어학적 자료 제시에 머물지 않고 두 언어권의 문화와 발상의 차이까지 접할 수 있는 언어사회학적 자료가 되기도 한다.

본고는 이 중에서 우선 공시적 연구로, 50년대 개역본을 통해 두 언어의 상대적 특징 몇 가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조연구 자료로서의 성경의 가치를 확인했다. 본고에서 살핀 것은 문장 단위 비교와, 일본어 「は」·「が」와 한국어 ‘는’·‘가’의 상관관계, 경어형태의 비교 등이었다. 이하 각각을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문장 단위 비교에서는 한국어가 문장 단위에서 일본어보다 문의 수가 훨씬 적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복문의 출현빈도가 높다는 것으로, 그 배경은 한국어가 일본어에 비해 접속형태가 발달한 것에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찰했다. 즉 한국어는 접속어미가 발달한 반면, 일본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상대적 현상으로 일본어가 한국어보다 접속사는 훨씬 분화되어 있음도 알 수 있었다.

둘째, 일본어 「は」와 한국어 ‘는’, 일본어 「が」와 한국어 ‘가’는 각각의 의미면에서는 유사하나, 출현빈도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어는 「は」가 많았고, 한국어는 ‘가’의 출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배경은 동일한 사태에 대한 수용방법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과 ㉡로 구성되는 사태를 상정했을 경우, 일본어는 「は」에 의해 둘을 구분하면서 「は」에 선행하는 ㉠을 주제나 구정보로 취급한다. 그러나 한국어는 이 둘을 ‘가’로 연결해서 중립서술이나 문 전체를 신정보화하는 것이다.

셋째, 경어범주의 비교로 한국어 경어형태 ‘시’가 일본어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실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에 하나는 한국어 ‘시’에 호응할 만한 경어형태가 일본어문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도 있었다. 이는 혈연관계를 우선하는 한국인의 의식과 「ウチ」와 「ソト」의 사회적 관계를 우선하는 일본인의 의식을 볼 수 있었던 부분이다. 한편, 각각의 언어에서 경어형태가 출현하는 위치에도 큰 차이가 있었다. 즉 한국어는 주체가 높임의 대상이면 주절의 동사이든 접속절의 동사이든 불문하고 거의 모든 동사에서 경어형태가 발견되지만, 일본어는 일반적으로 주절에 경어형태가 집중되면서 접속절에서는 수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들 하나 하나는 독립된 연구주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각각에 대한 부분적인 언급에 그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대조자료로서 성경의 가치를 논하는 본고의 목적에는 부합된다고 사료된다. 「성경 번역에서 본 한국어와 일본어(2)」에서는 통시적 연구자료로서 성경의 가치를 살피기로 하고 본고를 맺는다.

【參考文獻】

- 예수성교전서(로스역, 1887)
- 주관 신약전서(1911)
- 신약 역개(1939), 조선성서공회
- 성경전서(1956), 대한성서공회
- 공동번역성서(1978), 대한성서공회
- 공동번역성서 개정판(1999), 대한성서공회
- 표준새번역 성경(1993), 대한성서공회
- 표준새번역 성경 개정판(2002), 대한성서공회
- 新約聖書(明治譯、1880)、翻譯委員社中
- 旧約聖書(明治譯、1888)、聖書翻譯常置委員會
- 新約聖書(大正文語譯、1917)、聖書改譯委員會
- 聖書(口語譯、1955)、日本聖書協會
- 聖書(新共同譯、1987)、日本聖書協會

- 대한성서공회(1993), 『대한성서공회사 I』
- 대한성서공회(1994), 『대한성서공회사 II』
- 대한성서공회(1995), 『성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p.43~53

- 서정수(1996), 『국어문법』, 한양대출판, p.176~181
- 安增煥(2004), 『기도문 비교에서 본 한국어와 일본어』, 『日本文化學報21』, 일본문화학회, p.34
- 全叔美(1995), 『韓·日敬語用法の對照研究』, 『日本語教育85』, 日本語教育學會, p.78
- 韓美卿(1995), 『捷解新語における敬語研究1』, 박이정, p.2

- 海老澤有道(1989), 『日本の聖書』, 講談社、p.392~393
- 門脇 清、大柴 恒(1983), 『日本語聖書翻譯史』, 新教出版、p.395~398
- 久野暉(1973), 『日本文法研究』, 大修館、p.27~28
- 柴谷方良ら(1982), 『言語の構造(意味·統語篇)』, くろしお、p.102~103
- 牧野成一(1996), 『ウチとソトの言語文化學』, アルク、p.103~105
- 益岡隆志·田窪行則(1992), 『基礎日本語文法—改訂版—』, くろしお、p.218~220

要 旨

本稿の目的は韓国語と日本語との対照研究の資料としての聖書の価値を述べることにあった。韓国語の聖書と日本語の聖書は完譯の時期が19世紀後半で一致しており、その後何回かの改譯を共に実施している。だから、これらの聖書は二國の現代語の變化過程が見られる通時的な對照資料であると同時に、類似した時期の共時的な對照研究の資料としてもその価値が認められる。それに韓国語聖書も翻譯過程において日本語聖書の影響があまり大きくなかったので、これらの聖書は各々の言語の正体性を見せる非常に客觀的な資料になると思う。

まず、本稿では1950年代の二國の聖書に基づき二言語の相對的な特徴三つを究明することによって、對照資料としての聖書の価値を明白にしておいた。その一は、文章單位においての比較である。ここでは、複数の文を持って文章を構成する時、韓国語は日本語に比べ文の数がずっと少ないということが確認された。その原因は接續形態の分化ぶりにある(韓国語の方がもっと分化している)ということもわかって、代りに日本語は接續詞という品詞が相對的に多いことを確認した。その二は、日本語の「は」と「が」、そして韓国語の「는」と「가」の相關關係である。文法的な意味からは「は」は「는」と、そして「が」は「가」と基本的に似ているが、聖書から出現頻度を調べた結果では、日本語は「は」が多く韓国語では「가」が多いということも明白に現れた。この現象はある事柄に対する認識の差のためであろうと推察した。その三は、敬語形態の比較である。この比較では、二つのことが明らかにされた。一つは、韓国語の敬語形態「시」と對應する日本語の形態は「お~になる」「~られる」の他に、「てくださる」や「お(ご)+動詞の名詞形」など色々あるということであり、もう一つは、敬語形態の出現位置に注目すべき差があるということである。すなわち、日本語の敬語形態の出現は主節に集中しており、從屬節での出現は選擇的な性格が強いことがわかった。主体尊敬敬語ではほとんどの動詞に敬語形態が出現する韓国語とは違った現象であった。本稿でのこのような對照結果は聖書の翻譯や改譯の過程を考えれば信頼度がとても高いと見ざるを得ない。韓国語と日本語との對照資料としての聖書の価値はここにあるのである。

キーワード： 번역 성경, 문의 수, 「は」와 「가」, 「는」과 「가」, 경어형태

투 고 : 2005. 8. 31
1차 심사 : 2005. 9. 10
2차 심사 : 2005. 10. 1

住 所 : (300-791)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133 한남대학교 일문과

電 話 : 042-629-7340

e-mail : ajk7340@hanmail.net